

가을 낭만 '정읍사 문화제' 오세요

25~26일 정읍사문화공원 일원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강화 채수의례·공연·가요제 등 풍성



정읍사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해마을 부부나무 아래 우물에서의 채수의례.

현존 최고(最古)의 백제가요 '정읍사'를 기리는 '제36회 정읍사 문화제'가 25일과 26일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정읍시와 정읍사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채수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 기념식, 축하공연, 정읍사가요제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제18회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열리는 데다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공연도 준비됐다. 25일 기념식 축하공연에는 설윤도, 김다현 등 인기가수가 출연한다.

26일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경연을 펼치는 '정읍사가요제'가 열린다. 초청가수 송가인, 이미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 기간 정읍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가 상시 운영된다.

시는 축제장 전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통

대책을 강화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사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문화제를 마련했다"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

객이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리고, 정읍의 위상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갯벌서 생태 탐험하며 '환경 보전 의미' 체득

'세계유산축전 고창갯벌' 성료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하 갯벌추진단)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갯벌'에서 '찾아가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이야기'를 주제로 탐사보고갯벌센터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체험부스는 갯벌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해양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씨글라스 키링 만들기' ▲가상현실(VR)을 통해 갯벌의 생태를 탐험하는 'VR 갯벌 콘텐츠' ▲AI 생성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태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갯벌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이 단순히 관람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창작하면서 갯벌의 가치와 환경보전의 의미를 체득하길 바란다"며 "갯벌이 자연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는 소중한 자산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씨글라스 키링 만들기' 체험.

한편,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관리 기관으로, 보전·관리·모니터링·교육·홍보·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체험은 지역축제 연계형 이동홍보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월부터 3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11월까지 순회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서 전국 농악인 모여 실력 대결

'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 성료...일반부 대상 이동현 씨

'전통과 문화의 도시' 남원에서 '제1회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고(故) 류명철 명인을 추모하고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농악'의 전통을 계승 발

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악인들이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수준 높은 기량을 겨뤘다. 각자의 가락과 색채에 농악 본연의 흥겨움을 담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일반부 대상은 전북 정읍시립농악단 이동현 씨가 차지했다. 이 씨는 남원시장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 청소년부 대상은 전남 여수시 굴렁쇠놀이페스티벌이 차지해 상금 100만 원의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는 국악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

정읍시, 근린공원 일대서 11월 집중단속...동물등록비 지원도

정읍시가 반려동물 등록 제도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생후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자다.

시와 협약된 동물병원(마이펫·다나·대한·조은·제이에스)에 방문해 신청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천, 근린공원 등 반려동물 산책로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단속 전 협약 병원을 방문해 지원 사업을 통해 꼭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바르게 입고, 자연스럽게 누리는 한복'

고창문화관광재단 24~26일 전통예술체험마을서 '한복문화주간'

고창문화관광재단이 24~26일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2025 한복문화주간-고창에서 피어나는 한복' 행사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르게 입고, 자연스럽게 누리는 한복'을 주제로 일상 속 한복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복예절교육, 한복소품 만들기, 손잡에서 피어나는 오색빛깔(전연염색), 향기 품은 한복, 우리 가족 향기공방 등 5개의 사전예약 프로그램과 한복과 전통놀이, 가족한복사 진찰영, 전통예술체험마을 부스 전시 등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별 공연으로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풍요제 앞에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가을 음악회'가 열린다.

1부에서는 프로스트(PROST)가 팝페라 앙상블을, 2부에서는 투론(TURON)이 아시아월드뮤직 공연을 펼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행사 기간 내내 무료 한복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리제에서 성인 및 아동 한복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 한복이 없는 방문객도 부담 없이 한복을 착용하고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구강 진료' 인기

경로당 등 읍면 10개소 이상 순회 200여명에 무료 치과 서비스



남원시가 올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구강이동진료차량'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구강이동진료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지역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사진> 차량은 디지털 기반 장비가 구비된 치과진료실을 갖춰 ▲무료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틀니 관리 및 상담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 다

양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한다. 또 어린이 구강건강을 위한 예방서비스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치아 흠메우기(실란트)' 시술도 함께 진행, 성장기 아동의 충치 예방에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역 복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